

▶ 달러/원 주간 전망

• 중립 포지션으로 돌아온 달러와 연준의 매파적 동결 전망

서울, 9월1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전후한 달러 움직임에 주로 연동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40원이다.

전주말 기준으로 달러지수가 9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결국 달러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달러 움직임을 설명하는 다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

노바스코사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12일 기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서는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숏 포지션이 10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달러를 둘러싼 심리가 거의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그간 달러 숏 포지션이 감기면서 최근 달러가 반등했는데, 현재로선 달러 전망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금주에 있을 연준 정책 이벤트가 달러에 방향성을 제공할지 주목된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8%, 11월은 7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타이트한 고용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매파적인 동결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근원 물가 하향 안정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등 여러 지표들이 부딪히는 상황이라 연준이 향후 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시그널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크지 않지만, 연준의 경제 진단과 해석에 따른 금리와 달러의 단기 반응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중립 수준으로 회귀한 글로벌 달러의 포지션 재구축 여부와 그 방향에 따라 최근 1,320-1,330원 사이에서 좁게 움직이는 달러/원은 새로운 거래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정책 대응에 역외 달러/위안이 7.3위안 앞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어 원화의 방향성은 글로벌 달러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주 중 발표되는 중국 1년·5년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결과는 확인해야하는 지표 중 하나다.

한편, 금주는 미국 이외에도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 정책회의가 예정돼있다.

국내 일정으로는 9월 20일 기준 수출입과 무역수지 잠정치가 발표된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9월18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08:00)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1:00)

9월19일(화)

- ⊙ 기획재정부: 1차관 재경관 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14:00)
- ⊙ 기획재정부: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18:00)

9월20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09:00)
- ⊙ 한국은행: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14:00)

9월21일(목)

- ⊙ 관세청: 9.1~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3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발행실적

9월22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9월1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9월18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9월	50	50
9월19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7월		36.77B
9월19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8월	0.6%	-0.1%
9월19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8월	1.440M	1.443M
9월19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8월	1.440M	1.452M
9월20일	08:50	일본	수출 YY	8월	-1.7%	-0.3%
9월20일	08:50	일본	수입 YY	8월	-19.4%	-13.5%
9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9월		3.45%
9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9월		4.20%
9월2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9월15일 주간		182.2
9월21일	21:30	미국	경상수지	2분기	-221.2B	-219.3B
9월2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11일 주간	225k	220k
9월21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기업지수	9월	-1.0	12.0
9월21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9월	-16.5	-16.0
9월21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8월	4.10M	4.07M
9월22일	08:30	일본	CPI MM NSA	8월		0.5%
9월2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49.6
9월22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47.9	47.9
9월22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9월	50.3	50.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18일 (일)

- ⊙ 휴장국가: 일본

9월19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20일까지)

9월20일 (수)

- ⊙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21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21일 오전 3시30분)

9월21일(목)

-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22일까지)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8시)

9월21일(목)

- ⊙ 일본은행(BOJ) 금리 결정 발표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전미경제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9시5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피닉스리더십 공동 주최 행사 화상 대담 참석 (22일 오전 2시)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연준 금리 동결 전망

연방준비제도가 19~20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상승률이 예상을 소폭 상회했으나 금주 연준 금리 동결 전망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CME 페드워치 톨에 따르면 시장은 금주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예상하고 있고, 11월 25bp 인상 가능성은 30.6%로 1주일 전 43.6%보다 낮게 반영하고 있다.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경우 달리는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금리 인상 전망

오는 21일에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로, 영란은행은 5.5%로,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4.25%로 각각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중앙은행 정책회의도 21일 열릴 예정인데, 시장은 금리가 1.75%로 동결될 가능성과 그보다 인상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 BOJ 정책회의도 주시

최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0.7% 위로 상승했다.

우에다 총재의 갑작스러운 매파적 발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는 22일 BOJ 정책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 대다수는 BOJ가 적어도 내년 7월까지의 초완화정책 축소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브라질, 터키, 남아공 중앙은행 정책회의

브라질 중앙은행은 20일 정책회의에서 현재 13.25%인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터키 중앙은행은 21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8.25%로 동결할 전망이다.

⊙ 유로존 PMI

오는 22일에는 유로존 9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가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9월 제조업 PMI는 44.0으로 전달의 43.5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서비스업 PMI는 47.9에서 47.5로, 종합 PMI는 46.7에서 46.3으로 각각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금감원, 외환파생 등 운용 인력 3~5년 순환근무 의무화 포함 의견수렴... 은행권 강력 반발

서울, 9월1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외환파생 등 전문 운용 인력을 순환근무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주요 은행에 외환파생 관련 운용 인력을 순환근무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당국 방침에 대한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당초엔 외환파생 운용 인력은 순환 근무에 예외로 두기로 했었는데 금감원이 이번에 IB와 외환파생 운용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관련 의견을 은행마다 묻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계기로 장기 근무자 순환 배치를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부통제 혁신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기 근무자를 순환 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근무자는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동일 본점 부서에서 5년 이상 초과 근무한 직원이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법률, 회계,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은 순환근무 의무화 규제에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칭한 외환파생 운용이라는 범주와 관련해 은행권에선 외환, 채권, 스왑 등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 영업 등 모든 인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해 66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게 적발된 데다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56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까지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은행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당초 입장을 바꿔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도 순환근무 의무화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은행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은행 운용부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환파생 등 운용 부문은 금전 사고 가능성에 취약한 만큼 이전부터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프론트 오피스와 리스크·준법감시를 담당하는 미들 오피스, 자금결제 등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백 오피스간 업무 분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횡령 리스크 등을 근거로 운용 인력의 근속 연수를 제한할 경우 전문성 저하에 따른 은행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베테랑 딜러들이 순환 보직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은행들이 금감원에 운용 인력의 순환 근무 의무화 포함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

힌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도 조건 없이 예외를 준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경남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혁신안 내용보다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 예외를 조금 더 줄이고 시행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예외 없이 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파생도 순환근무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을 듣고 있어서 아직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며 "은행 의견서를 보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파생 쪽의 과거 사고 통계, 사고 위험, 인력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순환근무는 하지 않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식의 보완 수단을 강구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장진단) - 작년 고점-올해 저점 중간 지점에서 방황하는 원화... 수급 시그널마저 흐릿

서울, 9월1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9월 들어 환율은 상하단 강한 저항을 받으며 좁은 박스권에 갇혔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경계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월간 환율은 위·아래 강한 저항 속 움직임 폭은 1,330원을 중심으로 10원 범위다. 사실 달러/원 1,330원은 작년 고점과 올해 저점의 중간 지점이다. 결국 환율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의미있는 레벨에서 치열한 탐색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 방향성 유보 중인 원화

지난달 달러/원은 약 3.7% 올라 달러지수 상승률 1.7%를 훨씬 넘었다. 8월 무역수지가 예상 밖 소폭 흑자로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60억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자금과 12억달러 상당의 삼성전자 분기배당이라는 일시적 달러 수요에 더해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가 원화 약세를 가속화했다고 시장참가자들은 진단했다.

예상보다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자 역외들의 공격적인 숏 커버도 뒤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달러 강세는 재개됐다. 지난 주말 기준 달러지수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주 연속 주간 상승을 기록했다. 아울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신용 리스크와 맞물린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 약세 압력도 확대됐다.

하지만 원화는 연고점 부근에서 속도를 늦췄다.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 방어를 위한 세밀한 시장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국민연금은 환율이 연중 고점으로 오르자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기 보다는 한은의 스왑 자금을 이용했다.

한국은행은 8월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35억달러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을 강달러와 국민연금 외환스왑을 포함한 시장 변동성 조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의 시장 관리 이외에도 일부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달러 물량이 꾸준히 출회되며 환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대기업 중심으로 대규모로 들어온 해외 유보금 유입이 하반기 들어서에는 그 규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달러 공급 수급으로 작용하며 외환수급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A 은행 외환딜러는 "일부 기업의 유보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환율 상단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자금과 같은 일시적 수요는 견히더라도 달러 강세와 위안·엔 약세 여건 속 유가 상승에 따른 결제수요에 하단이 쉽게 밀리지도 않는다.

이처럼 수급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환율의 에너지는 응축되고 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인위적으로 위가 막힌다 하더라도 환율의 아래를 떠받치는 건 국내외 매크로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위도 아래도 단단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면서 월간 기준 전년비 반도체 수출이 10월경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원화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진 못하는 가운데 이보다는 대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C 은행 외환달러는 "매크로가 지지되지 않으면서 리스크 오프 여건이 형성되면 그간 잘 제어됐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경기침체 이슈로 강달러 여건이 형성되고 이 같은 여건에서 환율이 1,340원대 저항을 뚫고 추가 상승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 블록 통화로서의 원화 위상을 감안할 때 위안화 움직임은 복병이다.

로이터 폴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위안 숏 포지션은 줄고 있다. 위안화 숏 포지션에 대한 대대적인 언와인딩은 원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점과 저점의 평균 레벨에 머물면서 원화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장참가자들의 고민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굵직한 모멘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美 경제 회복세가 달러 약세 막아... 연준 테스트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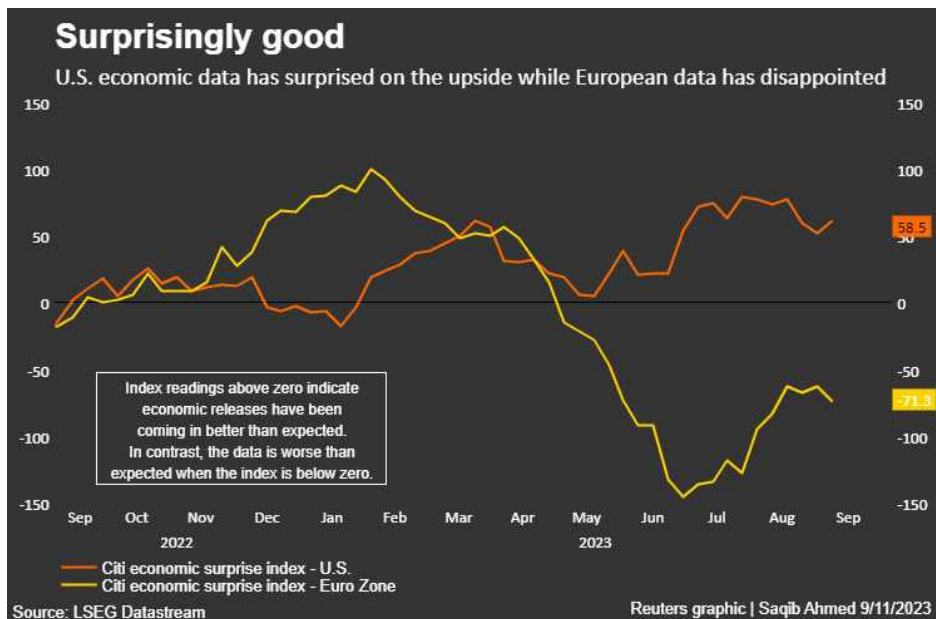
뉴욕, 9월12일 (로이터) -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달러 반등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달러 랠리는 각종 지표와 오는 19~20일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달러지수는 7월 말 이후 5% 급등하며 약 반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달러 강세는 세계 주요국 통화를 압박하여 위안 가치를 2007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도 일본 당국의 개입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달러 가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 여름 동안 세계 주요 경제의 성장세는 흔들렸지만 미국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달러의 상대적 매력 을 높였다.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금리 어드밴티지를 계속 누릴 것이라는 신호에 달러 약세 전망은 약화됐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기세력들의 달러 순 숏 포지션은 지난 7월 말 2년 만의 최고치인 212억8,000만달러에서 지난주 71억7,000만달러로 축소됐다.

UBS의 외환 및 거시 전략가인 바실리 세레브리야코프는 "이는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견실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은 미국 예외주의라는 테마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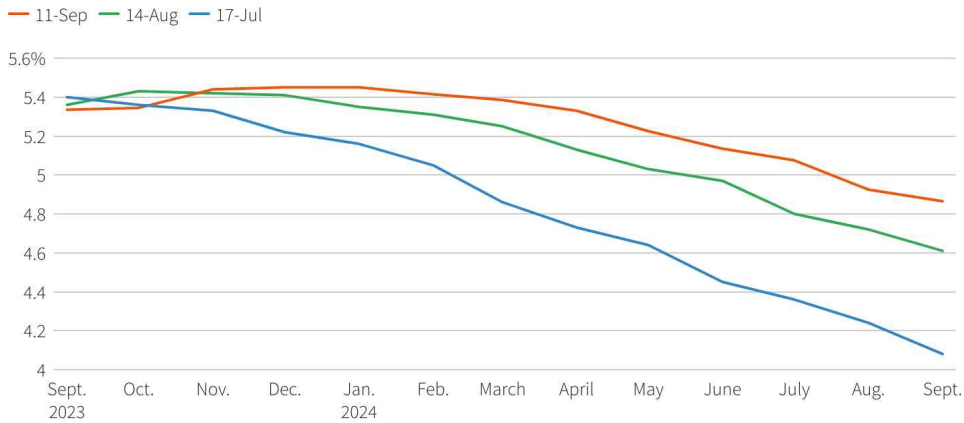
9월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주요 미국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테마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베팅을 재고할 수 있다.

다음 주 연준 정책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달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믿으며 통화정책 완화가 언제 시작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해 현재 투자자들의 완화 예상 시기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다소 미뤄진 상태다.

Higher for longer takes hold

The interest rate futures market has absorbed the message from Federal Reserve officials that rate cuts are still a long way off. In mid-summer, the market was positioned for rate cuts to begin no later than early 2024 - or sooner. Now the first reduction is not fully priced in until about mid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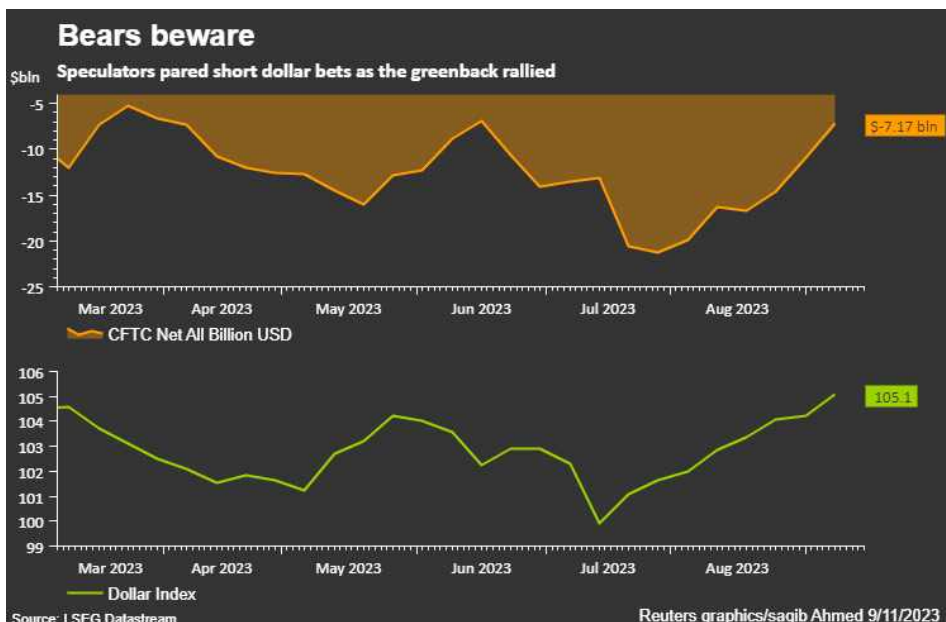


Note: Forward implied yield curves from Sept. 11, Aug. 14 and July 17 on fed funds futures contracts maturing through September 2024
Source: LSEG

스탠다드차타드의 G10 외환 리서치 책임자인 스티븐 잉글랜더는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심리를 바꾸려면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만한 경제지표 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 강세는 신용 여건을 타이트하게 하는 동시에 미국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역풍이 될 수 있다. S&P500지수는 7월 말 고점 대비 2%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로는 여전히 17% 상승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81%가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달러 전망에 대해 상승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Source: LSEG Datastream

Reuters graphics/saqib Ahmed 9/11/2023

반면 일부 달러 약세론자들은 달러가 2021년 1월 저점 대비 28% 상승한 다년간의 랠리 이후 달러의 하락 여지가 상승 여지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UBS의 세레브리아코프는 지금이 엔화와 파운드 대비 달러 숏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쌓기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TD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달러가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8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0.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7월 증가율은 0.7%였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초완화 정책 종료 시사하는 BOJ

도쿄, 9월12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 정책결정자들이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BOJ 위원들의 일련의 매파적인 발언은 일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궁극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비둘기파 성향의 BOJ 위원들조차도 극도로 완화적인 정책에서의 출구 전략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황의 변화로 인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지난 9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는 BOJ가 단기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지난달 경제를 해치지 않고 단기 금리를 안전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제안한 다무라 나오키 정책위원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다무라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더라도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한 통화 완화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에다 총재 하의 BOJ는 채권 시장을 왜곡하고 은행 예대 마진을 압박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로다 전 총재 시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시사한다.

다이와증권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이와시타 마리는 "BOJ는 내년 4월에 일본이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OJ의 생각을 잘 아는 세 명의 소식통은 일본 경제가 글로벌 수요 약화의 영향을 견딜 수 있고 기업들이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 있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부양책을 줄이는 것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 취약한 일본 경제에 변화의 조짐이 커지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출구 전략의 장애물에 대해 더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지난주 다카타 하지메 정책위원은 "일본 경제가 마침내 일본은행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인내심을 갖고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임금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긍정적인 사이클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책위원인 나카가와 준코는 마이너스 금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가계 신뢰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 정해진 타이밍은 없어

지난 4월 총재 취임 이후 우에다는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 왔다. BOJ는 7월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하여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했다.

다음 단계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목표치인 0%를 폐기하거나 인상하고 단기 금리를 -0.1%에서 인상하는 것이다.

BOJ 정책결정자들의 최근 발언은 BOJ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행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는 BOJ가 1년 안에 부양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관련해서는 우에다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지난달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조건이 충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기준을 좀 더 높게 설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년 임금 전망이 여전히 핵심이다.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3월에 노조와 봄철 '순토' 임금 협상을 시작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BOJ는 지역 지사를 통해 협상 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임금 전망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의견을 얻을 수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일본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고 임금 인상이 억제될 수 있어 글로벌 전망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임금과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BOJ가 언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정해진 타이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불안한 투자처가 된 중국

이 칼럼은 마이크 돌란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9월13일 (로이터) -

중국이 "투자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던 아니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을 기피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투자할 수 없는" 국가라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오프라인 투자, 공급망 익스포저, 주식 상장이 관심을 받았지만, 포트폴리오 흐름은 주춤하고 있다.

구조적인 부동산 폭락에 대한 두려움, 실망스러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단편적인 정부 지원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투자는 불안해졌고 위안 가치 하락이 가속화됐다.

민감한 기술 및 보안 관련 부문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 및 관련 투자 제한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설문 조사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투자 포지셔닝에 어느 정도 드러났다.

중국 중심의 신흥국 주식에 대한 순자산 비중은 지난 한 달 동안 25%포인트 감소하여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거의 7년 만의 최대 월간 감소폭이었다.

조사 응답자의 3분의 1은 중국 부동산을 가장 큰 '신용 이벤트 리스크'로 꼽았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추월한 수치였다.

최근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당초 5.5%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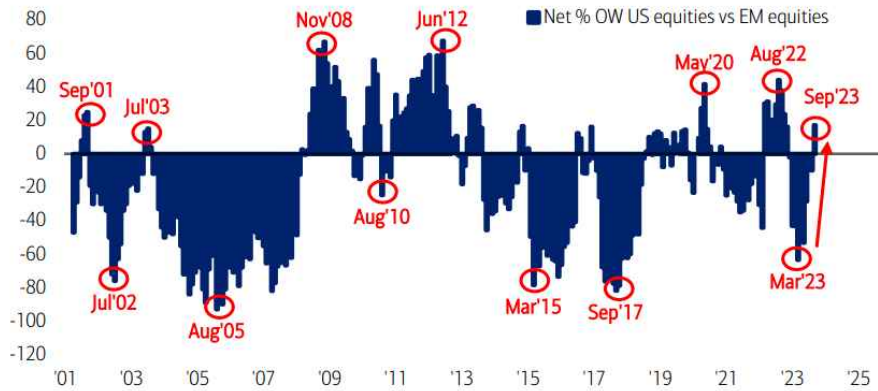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시장의 암울한 전망이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률 개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 달 미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는 조사 역사상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 비중확대 포지션을 기록했다.

신흥 시장에서 월가로의 순 이동도 20년 이상의 조사 기간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국 경제의 "암흑의 절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투자 쓸림은 종종 좋은 역발상 지표가 될 수 있다.

Chart 4: Biggest jump ever in US allocation vs EM stock allocation

Net % FMS Overweight US Equities - Net % FMS Overweight Global EM Equ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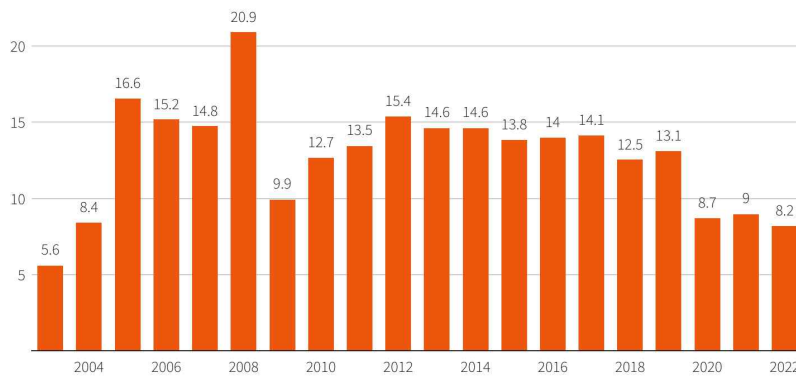


Source: BofA Global Fund Manager Survey

BofA GLOBAL RESEARCH

U.S. direct investment into China falls as tensions rise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all Chinese industries hit an 18-year low in 2022 amid higher U.S. tariffs and export controls and Beijing's increased scrutiny of U.S. firms in China. Annual investment flows in billions of dollars, based on announced transactions compiled by Rhodium Group.



Source: Rhodium Group



◆ "리스크는 나쁘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시장 반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신흥 시장 붕괴 이후 전개된 질은 정치적 안개와 투자 변화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시 아시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 시장을 중심으로 정치 및 통화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가시성은 사라졌다. 미국 자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흥 투자처로 빠져나갔고, 닷컴 버블에 일부 기여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중국 시장이 예전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다며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업을 볼 때 중국으로부터의 리스크-리워드가 매우 좋은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그냥 괜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는 나쁘다"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미국 의원들에게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잠재적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기업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공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위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투자자들은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세계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에 있는 유일한 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캐나다 최대 연기금인 CPP인베스트먼트는 홍콩에서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중국 거래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온타리오 교사연금계획은 4월에 중국 주식 투자팀을 폐쇄했으며, 퀘벡 연금공단은 올해 상하이 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은 지난주 테마섹, 브리지워터, 블랙록 등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관계 개선 및 신뢰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프랭클린 템플턴의 최고 경영자 제니 존슨은 중국에 대한 비관론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HSBC 프라이빗 बैं킹 및 웰스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윌렘 셸스는 중국 시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부문, 관광, 국내 서비스, 게임, 전기자동차 등 실적 개선이 나타날 때마다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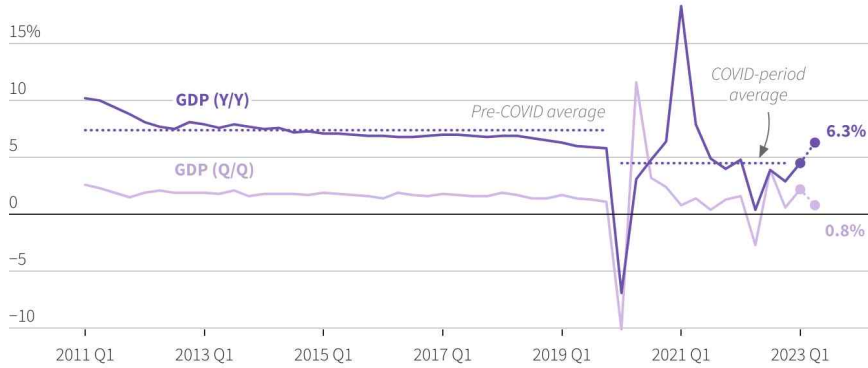
그러나 내년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욕구는 낮을 수 있다.

지난달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초당파적으로 대다수의 미국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선호하며,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치적 촉매제는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China's faltering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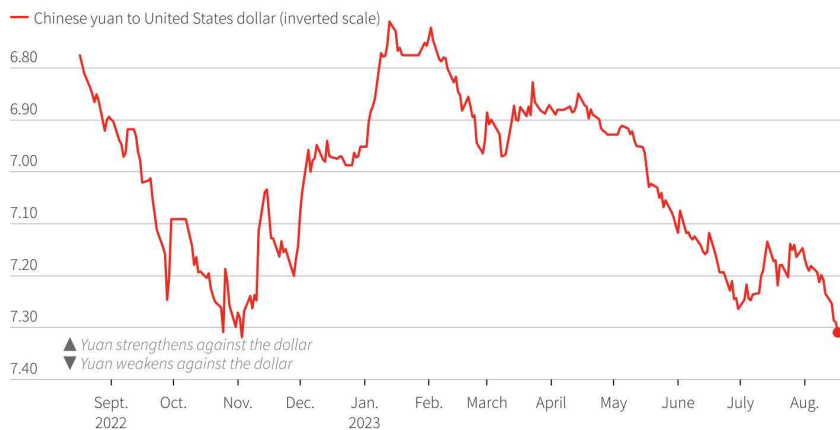
China's economy grew at 0.8% in the second quarter from the previous quarter, while the annual figure was flattered by base effects, underscoring the faltering growth due to weakening demand.



Note: Pre-COVID average is from Q1 2011 to Q4 2019, COVID-period average is from Q1 2020 to Q4 2022.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17, 2023 | By Kripa Jayaram



China fears weigh on yuan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ust 18, 2023 | By Vincent Flasseur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중국인민은행, 달러 대규모 매수 감시 강화 - 소식통

베이징/상하이, 9월12일 (로이터) -

중국인민은행이 자국 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이 11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5천만 달러 이상을 매수해야 하는 기업은 이제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말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시중은행들을 소집했다.

한 소식통은 "승인 절차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최근 위안화 약세가 실제로 너무 심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달러/위안이 7.5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기업 고객을 대신한 일부 대출 기관의 막대한 달러 구매에 대해 경고해왔다.

인민은행은 달러 매수 감시 강화 계획과 관련한 로이터의 문익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